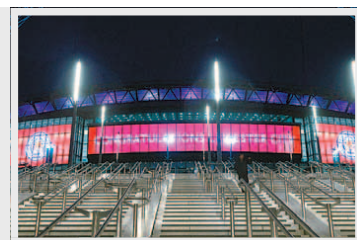


LG, 英 웨블리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 공급

LG전자는 영국 최대 경기장인 웨블리 스타디움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가로 약 57m, 세로 7.5m 규모의 LED 전광판이다. 메인 전광판 양옆으로는 가로 약 19m, 세로 11m 크기 전광판 2개를 각각 설치했다. 전체 전광판 면적은 총 840㎡로, 농구장 두 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메인 출입구 그레이트홀 위에 설치돼 관람객에게 경기 정보, 광고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준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1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해외투자·M&A 가속화...삼성 다시 달린다

“국가경제 등 고려”...13일 자유의 몸으로 美 반도체 투자·글로벌기업 M&A 탄력 해외출장 제한 등 현장 경영복귀 힘들어 경제단체들 “환영 속 사면 안돼 아쉬움” 부당합병 등 재판 남아 재수감 가능성도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법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투자와 인수합병 등 삼성전자의 굵직한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제약이 많은 만큼 본격적인 현장 경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재판으로 재수감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삼성 투자 시계 빨라지나

박법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이 부회장은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개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선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반도체 투자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해

미국에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투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주 정부와 인센티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투자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전자의 투자가 늦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환경은 삼성전자에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앞 다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미국에 이어 일본과 유럽에도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3월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인텔도 미국 등에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설까지 나왔다.

●현장 경영 복귀는 어려워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쉼표 등 글로벌 기업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등 차세대 사업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등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7년 하반기 인수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이 없었다.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00조 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인수합병 움직임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수년 동안 M&A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왔으며, 많은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고, 지난달에는 “인공지능(AI), 5G, 전장 사업 등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런 빅딜에 속도를 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가석방된다고 해서 당장 현장 경영 일선에까지 나서기는 어렵다. 가석방의 경우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사면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만큼 온전한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반면 가석방은 형기가 남아 있어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별경제범죄자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고, 해외 출장을 자유롭게 못한다. 재계가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이유다.

재수감 가능성 등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19일부터 열린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인수합병 등 삼성전자의 굵직한 의사결정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인 만큼 온전한 경영 복귀는 어려움을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 친환경 산업단지 만든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조성 MOU 체결



이형원 SK에코플랜트 에코비즈니스부문장(오른쪽)과 황선봉 예산군수.

SK에코플랜트는 9일 충남 예산군과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5일 예산군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형원 SK에코플랜트 에코비즈니스부문장, 황선봉 예산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일원에 약 140만㎡(약 4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는 바이오헬스케어, 수소전기차 부품 등과 연관된 첨단기업 등을 유치해 5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3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투자자(CI)로서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예산군은 사업을 주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참여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등 개방형 직위 공채 선임



이병익 본부장 조강희 본부장 전영민 센터장

강원랜드는 개방형직위 공개 채용을 통해 카지노 본부장, 리조트 본부장, KLAS C(강원랜드 중독관리) 센터장을 선임했다. 카지노본부장에 이병익 전 파라다이스그룹 워커히카지노 부사장, 리조트본부장에 조강희 전 강원랜드 호텔영업실장, KLACC센터장에는 전영민 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문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전략본부장은 적격자가 없어 추후 재공모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학력, 나이, 성별 등 채용에 영향을 줄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했다.

NHN, 한컴과 클라우드 동맹

NHN이 한글과컴퓨터그룹과 클라우드 동맹을 맺었다. NHN 자회사 NHN드레이는 한컴에 독점 영업권을 제공해 협업을 서비스부터 클라우드 사업영역까지 함께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한컴은 기존에 보유한 영업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해 NHN드레이의 기업대상(B2B), 정부대상(B2G) 서비스 확산에 주력한다. NHN드레이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협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기반 업무 수행이 가능한 NHN드레이는 메일, 드라이브, 메신저, 화상회의, 캘린더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모은 올인원 협업툴이다. 현재 10만 사용자를 확보하며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경산업 랩신, 새 모델로 배우 전미도 발탁



애경산업이 위생 브랜드 랩신의 새 모델로 배우 전미도(사진)를 발탁했다. 회사 측은 “드라마 ‘술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완벽을 추구하는 전미도씨의 이미지가 랩신에 추구하는 핵심 메시지가 된 완벽한 위생과 잘 부합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전미도는 청결한 생활을 도와주는 ‘손씻기 캠페인’과 TV CF 등을 통해 ‘완벽한 위생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브랜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자생한방병원, 국내 첫 美 평생의학교육인증원 ‘정식 인증’ 획득

미국 외 국가서 정식 인증 획득 4곳 뿐 보수교육 연계한 30여 국가도 인정

자생한방병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정식 인증(Full Accreditation) 보수교육 제공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5년 7월까지며 4년 간격으로 재인증 절차가 이뤄진다.

앞으로 미국 의료진들은 자생한방병원 프로그램을 의사면허 유지에 위한 보수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ACCME는 95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의료진의 보수교육(CME) 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겸하고 있다. ACCME의 보수교육은 미국 외에 유럽 평생의학교육인증원(EACCME), 캐나다 왕립 의사 및 외과대학(RCPSC) 등 30여 개 국 의료단체의 보수교육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 정식 인증 보수교육 제공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왼쪽)이 미국 의료진들에게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이외 국가에서 ACCME의 인증을 획득한 보수교육 제공기관은 총 13곳이며 이중 ‘정식 인증’을 획득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처음이다. 자생한방병원은 2019년 ACCME가 신

규 보수교육 제공기관에 부여하는 2년간의 임시 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을 취득해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해왔다. 교육 제공 초기부터 온라인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전면 온라인화 전환

을 통해 최신 교육 콘텐츠 개편을 실시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 ACCME의 정식 인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 교육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외 의료기관과 협력해 합동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은 “ACCME 정식 인증 획득은 자생한방병원이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가 있다”며 “자생 비수술 치료법의 세계화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마련하고 글로벌 의료교육중심 트렌드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11월 미국 아칸소 보건교육대학(ACHET)과 공동 운영으로 ‘제3회 자생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 개최하고 글로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